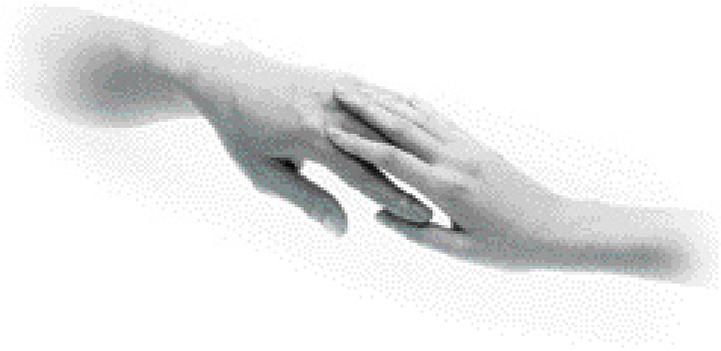


사랑의 신비

| 디팩 초프라 | 이상춘 옮김 |

사랑의 힘에 복종함으로써 신비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자신이 열린 상태가 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언제나 같은 것을 원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듯 견해도 다르다. 진정한 복종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과 깊은 영적 교류를 원하지만 돈이나 직장, 가족, 야망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 가로막혀 실패하곤 한다. 물론 이런 욕망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양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타협안을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다.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여정에 복종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여정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나 상대가 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부차적인 문제다. 어디가 되었던 길이 인도하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라. 그 여정을 함께 가려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자아와 영혼 사이의 간격이기도 하다. 거짓자아가 당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이 공동구역에 들어가서 다음 질문을 던져보라.

- 어떤 선택이 사랑을 키울까?
- 무엇이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까?
- 나는 얼마나 의식이 깨어있을까?
- 나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있을까?
- 내 행동은 신뢰에 바탕을 두었을까, 불신에 바탕을 두었을까?
- 나는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을까?
- 나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무엇이든 아낌없이 줄 수 있을까?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은 영혼을 일깨우는 심오한 화두다.

이것은 ‘나’와‘당신’을 초월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끈다. 당신이 누군가와 공유하는 공간은 거짓자아 너머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며, 통제하려는 이전의 습관이 간간이 고개를 내밀곤 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지? 나는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어.”

그러나 당신의 거짓자아가 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관계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무엇이다. 그것은 신비이며, 사랑은 이 신비에서 태어난다. 신비스런 힘은 거짓자아가 아무리 필요하고, 바라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끈다. 당신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신비한 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신비한 힘의 존재를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을 눈멀게 한다. 그 힘에 사로잡힌 사람은 서로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온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 안에 존재하며 장밋빛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 시들해지면 장밋빛 세상도 빛을 잃는다. 당신은 처음에 경험했던 충만한 기쁨, 당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 안에 있는 즐거움을 되살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사랑의 힘에 복종하려 한다. 당신은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사랑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게 보여줘.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그 대답은 당신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준다. 사랑은 문제를 풀고, 상처를 치유하고, 대립을 해소하고, 예상치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인 사랑, 즉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갇혀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개인을 넘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런

사랑에 자신을 맡기면 늘 갈등을 일으키던 돈과 야망, 직장, 가정사에 대한 집착이 해결된다. 보이지 않는 힘이 대립을 와해시키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자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이 열린 상태가 되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당신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충동에 기꺼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발적인 삶이다. 자발적인 삶에 다다르면 무슨 일이든 순조롭게 풀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저절로 얻는다.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지극히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자연스런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신의 삶을 비난하거나,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한계 정하기를 고집하면 신비한 힘은 당신을 비껴갈 것이다.

신비한 힘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복종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 한 번에 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여정은 비록 굴곡이 있더라도 꾸준히 전진할 것이며, 모든 걸음걸음은 사랑을 향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며 두 사람을 축복한 사랑의 힘을 함께 인식하고 나누기 위해서다. (끝) 

- 이 글은 『디팩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디팩 초프라 Deepak Chopra | 세계적인 영성철학자이자 대체의학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내과 의사 겸 내분비학자인 그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해 60권 이상의 책을 썼다. 이 중 다수가 8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뉴욕 타임스 등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영성 분야에서 지도적인 인물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에서 심신의 건강과 행복에 관해 강연하고 있다. 『우주 리듬을 타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마음의 법칙』, 『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 법칙』, 『사람은 왜 늙는가』, 『죽음 이후의 삶』, 『디팩 초프라의 완전한 삶』 등을 펴냈다.

역자 | 이상춘 |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Korea Trade News> 기자로 일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삶을 바꾸는 감사의 습관』, 『똑똑한 부모를 위한 대화의 기술』, 『엄마-딸의 지혜』 등이 있으며, 저서로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담은 책 Good Book

디팩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



저자 디팩 초프라 | 역자 이상춘 | 출판사 한문화 | 정가 13,000원

세계적인 영성 철학자인 디팩 초프라가 말하는 행복의 길. 현대사회는 행복이 부와 성공, 유익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일이라고 주입해왔다. 하지만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디팩 초프라는, 이것은 행복의 결과로 얻어지는 부산물이자 행복의 요인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더욱이 외부요인은 환경변화에 따라 바뀌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행복과 불행을 오가는 인생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초프라는 심연의 참자아에 뿌리내리는 것, 즉 깨달음을 통해서라고 답한다. 모든 고통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참자아를 깨닫기만 하면, 고통이 아닌 참다운 행복의 희열을 맛볼 수 있다. 초프라는 참자아를 향한 여정의 안내자를 자처하며 일곱 개 이정표를 세운다. 이를 따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행복은 더 이상 외부조건에 발목 잡힌 인질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이다.